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4년 07월)

일시		2024.07.25.(목), 오후 5시	장소	LG화학 안산사택
참석자	위원	강문식 위원장, 박병희 위원, 박성주 위원, 박병현 위원, 조애숙 위원, 천지연 위원, 김기응 위원, 나민수 위원, 박소정 위원, 박경숙 위원, 정상경 위원		
	회사	대표이사, 경영심의센터장, 방송사업센터장, 콘텐츠센터장, 보도센터장		

위원장

장마철 국지성 집중호우 때문에 전국 곳곳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기후가 정말로 예전과 달라지고 있는 걸까요?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이런 재난 상황에 대비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MBC의 적극적이면서도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 7월 뉴스 MBC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부서별로 지난 회기 업무설명과 다음회기 계획 들어보는 순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센터장

7월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및 8월 예정 사항을 함께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수 섬특집 1부작부터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거문도 백도 촬영편집 계속 진행중이며 추가 촬영 및 편집을 마쳐서 9월 중순 추석 무렵에 방송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편도 역시 여름 이후부터 촬영을 시작해서 12월 초 정도 방송 목표로 손죽도, 초도 외 6개 섬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도시 순천 특집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11월 초로 예정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까지 취재를 해서 11월 말 방송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특집 난임 지역 난임 부부 프로젝트는 지금 인터뷰 과정들을 쭉 거의 마쳐가고 있으며 지금 전문가 인터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0월 10일 여성의 날 때 방송 목표를 잡았었는데 아무래도 그 조금 제작을 좀 서둘러서 이후에 또 정책적인 변화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서 반향을 일으키기 위해서 8월 저희 창사 주간에 방송을 하는 목표로 조금 앞당겨서 지금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8월 23일부터 저희 창사 주간 27일까지 이 정도 해서 4~5일 정도 지금 방송 목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섬마을 여행사는 지금 지난달 금오도편에 이어서 이번 달에는 여수 안도 지금 방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방송할 예정입니다. 6시 35분부터 그리고 8월의 낭도 9월에 행간도 10월에 하화도 11월의 개도 순으로 계속해서 지금 취재하고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클라쓰는 지난주 토요일날 여수 남산공원에서 공개 녹화를 가졌습니다. 여수 버스킹하고 함께 해서 '한여름의 버스킹 공연'이라고 해서 2부작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저희 '워터밤 여수'가 8월 말에 지금 예정돼 있는데요. 그 주간을 맞이해서 일정 중 하나

로 트로트 클라쓰도 7월 29일 목요일 정도에 2부작으로 제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콘서트 올해는 여수에서 개최되는데요. 지금 9월 7일 본선을 앞두고 8월 3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TV 스폿 등 홍보를 하고 있고, 모집해서 예선, 본선 해서 올해도 풍성을 행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반영 사항입니다. 프로그램 부분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지역의 산단 안전 문제 관련해서 역할을 주문하셨는데요.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 라디오 전망대에서 뉴스 브리핑이나 민원 해결사를 통해서 꾸준히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양 전세 사업의 심층 보도 부분도 지금 라디오 전망대에서 언더독이나 라디오법정 등을 통해서 피해 대책 및 특별법 관련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단 사적 재개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요. 라디오 전망대에서도 서로불어 7월 19일 편에서 지금 옛 이슈를 좀 다뤘습니다. 그리고 요수 인구 문제 관련해서도 뉴스 브리핑이나 민원 해결사를 통해서 여수시 인구 27만 무너지는 부분들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상가 폐해 등 도시 문제 조명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라든가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 같은 토론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달 전해주시 의견인데요. 순천의 마을공동체 부분 우리 지역의 따뜻한 이야기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지난주에 어바웃 우리동네를 통해서 순천 재미난 가게 부분들 소개한 바 있습니다.

보도센터장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무더위 취재, 광양 지역 전세사기 수차례 기획보도 통해 문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수 석유화학 침체문제 사택 개발 찬반문제, 경기불황에 따른 상권 침체에 대해 다뤘습니다. 교육문제 관련해서 순천에 있는 바둑고 존폐위기를 취재했고, 지역 유일 프로그래밍 단인 전남 드래곤즈의 상승세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지역 올림픽 기대주 보도했습니다. 뉴스앤이슈는 민선8기 2년 돌아보는 토론회를 지역별로 실시했습니다.

8월 계획입니다. 태풍, 재난재해 방지대책에 대해서 꾸준히 다룰 예정이며, 지역 인구소멸이 심각한 상황이라 여수 27만 붕괴 문제 등을 기획보도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문제,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개청 1주년, 여수세계박람회장 3,600억 투자 부채상환 문제 등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 드래곤즈가 상승세에 있습니다. 미디어가 주목하면 우리 지역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게 또 관광으로 이어지고 또 지역 상업 발전 상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수MBC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방송사업센터장

방송사업센터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달 저희가 7월 17일 여수아카데미 '전쟁이 만들어낸 음식의 역사'라는 주제로 진행했고 7월 12~14일 금토일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뮤지컬 노트르담드 파리 공연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거의 한 100프로에 가까운 판매율로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8월달 예정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케이팝 페스티벌인데 저희가 일명 타이틀을 '여수 뮤직 페스티벌 Y'라는 아이템으로 해서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총 4일간 진행계획에 있습니다. 첫날은 케이팝 페스티벌로 해서 쇼 챔피언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나 할 거고요. 둘째, 날은 K트롯 우리 트로트 클래스를 또 같은 공연장에서 트로트로 공연할 예정이며, 세 번째 날은 '나이트 런'이라고 해서 5KM, 10KM 해서 세계 박람회장 주변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8월 31일 날은 올해 워터밤 마지막 공연을 전국 투어로 저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번에는 위원님들의 여수MBC 방송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병희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병희 위원

지난번에 전세 사기 심층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을 해서 심층 취재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순천대 의대유치와 관련해서 계속 여수 MBC에서도 많이 취재, 보도가 이뤄지고 있어 의대 유치 추진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주 위원

시민단체 사택 재개발 문제 관련하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사택 재개발 문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여수MBC에서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박병희 위원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해 경남 서부권과 협력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동, 남해, 그리고 전라북도 남원까지 지역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순천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 순천과 남해를 왕복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없어졌는데 이 부분 한 번 취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천공단 내에서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도한 모든 언론에서 공교롭게도 국립 병원 부재를 결론으로 냈지만, 필수 의료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줬으면 합니다. 수지접합을 예로 들면 정형외과 성형외과에서 양분을 하는데 단독으로 이 과를 별도로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이걸 아예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대표적인 화상센터나 아주대 중증의료센터처럼 독립적으로 독립을 시키지 않으면 대학병원 아니라 더 큰 병원 들어와도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19 상황실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어플을 보면 어디 호텔에 방이 남아서 예약을 하는 것처럼 119 상황실이 정말 필수로 이런 접합이나 중증외상, 심장, 뇌혈관은 어느대학병원이 이게 지금 수용 가능한 지 등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천지연 위원

방송에서 쓰고 있는 '문제', '붕괴'라는 단어가 주는 피로감으로 인해 주목해야할 사안에 대해서 접근이 꺼려지고 있습니다. 심각함에 대해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좋으나 '문제', '붕괴' 꾸준히 노출돼 피로함을 느끼게 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나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육아입니다. 출산율 하락 위기, 인구소멸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면 정작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합니다. 산후 우울증과 부부관계에 있어서 문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 사회가 지원해줘야할 정책 등에 대해서 아직 많이 부족하기에 이에 대한 노력과 보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천대학교가 글로벌대학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글로벌대학 사업은 외국인 유학생 1,000여명을 수용해야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대학, 그리고 사회 전반에 외국인을 받아들일만한 지역의 인식 및 인프라가 부족하기에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조애숙 위원

인구유출문제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수, 순천, 광양, 고흥 우리 지역 지자체의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 인구유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수지역 산단 사택 재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지자체의 규제 해제와 지역민의 득과 실에 대한 내용도 꾸준히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민수 위원

여수 산단 내에서 안전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한 그 부위에 대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이 지역에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성화된 타 지역병원으로의 전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대 유치와 더불어 상해 특성과 관련된 특성화 된 병원이 필요, 응급의료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소정 위원

시청자들의 눈에 띄는 것은 보도, 지금도 충분히 잘 하고 있으나 더욱 나아가는 보도였음 좋겠습니다.

우선, 인구문제와 관련해서 인구유출, 인구절감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것입니다. 인구유출의 문제와 일부 인구가 절감되는 문제를 구분해서 이것이 좀 취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구가 적은 소규모 도시에서도 굉장히 멋진 도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격있는 좋은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좀 후속기사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대유치문제 동서부간 갈등 심화되고 있으며, 의대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양쪽이 똑같이 주장하는 상황에서 서로의 의견만을 주장하고 갈등이 심화되면 이것이 여론몰이 정치행위로만 끝날 수 있을 거라 우려됩니다. 순천대가 의대 유치를 위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이 줄어들고 있고 예식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또한 광양 같은 경우 예식장이 없어 타 지자체로 넘어와 결혼하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예식 진행을 많이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취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남도립미술관 버스 승강장 부재문제, 여순사건특별법 발의 후 첫 유해발굴봉안식, 추모식 축소 진행했는데 왜 축소해서 진행됐는

지에 대한 취재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지자체 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의회의 역할, 전반기의 의회의 잘한점과 못한점, 하반기 주요 과제 등에 대해서도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율 하락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출산율 회복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이 등장하고 있지만 지금 태어나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지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여수MBC의 큰 역할 기대합니다.

박경숙 위원

작년에 기후 위기를 포함해서 격변하는 시대에 앞으로 살고 싶은 사회를 상상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생애 전환기 교육을 실시 관련 조례만들었습니다.

진로가 바뀐다거나 직장을 들어가거나 출산 등 이런 생애 전환기에 어떤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을 것인지 굉장히 큰 고민이 필요한데 이게 가정 내에서 개별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쌓여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생애 전환기마다 개인의 삶과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담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정상경 위원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 국가대표 취재 잘 보았고 이와 관련하여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적인 취재를 통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도센터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전남드래곤즈는 위원분들도 아시다시피 전남도의 유일한 프로구단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구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기응 위원

사택 노후화가 심화되다 보니 사택 안전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택 수리에만 한해 많은 비용 발생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재개발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민과 꾸준히 소통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수MBC에서 추진하는 많은 공연기획이 지역민의 문화소양 함양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대형 뮤지컬 같은 경우 지역 관광에도 연계돼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좋은 공연을 유치해주길 기대합니다.

위원장

이상으로 7월 여수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